

# 범어사 보제루의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 연구

서 치 상

(부산대 건축학부 교수)

윤 석 환

(부산대 건축학부 외래교수)

주제어 : 범어사, 보제루, 중정누각, 누하진입, 우각진입, 일본식, 복원

## 1. 머리말

범어사 중정 누각인 보제루는 1700년에 창건되었다. 이후 1812년 중창 때 건축형식이 바뀌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입면으로 꾸며지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바탕 위에서 수리가 이뤄진 탓에 일본식 벽면 구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다가 목조기둥과 판자벽은 콘크리트기둥과 벽돌조적 위 석판 불임으로 개조되고, 우물마루 위에는 다다미까지 설치되었다. 누가 봐도 전통법식이 적지 않게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이다.

지금의 보제루는 곳곳이 퇴락해서 누수, 박락이 심하다. 1차적으로는 건물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개·보수가 불가피하다. 나아가서는 일본식으로 변경된 부분을 바로 잡는 한편, 전래의 원형대로 복원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제루의 원형 복원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복원을 위한 기준시점일 것이다. 건물 명칭은 창건 이래 그대로지만 이후

에 다시 지을 때 변화가 생겼다면 복원 시점에 따라 건축형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창건 때의 건축형식이 지금과 다르다면, 범어사 가람배치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수정이 필요하다. 즉, 중단의 중심 전각인 보제루는 중심중축선 상으로 상단의 대응전과 마주보며 좌·우 전각들과 함께 ‘口’자형 중정을 형성한다. ‘누(樓)’ 이지만 단층인 탓에 중정으로는 보제루의 좌·우측면을 돌아서 들게 된다. 이를 근거로 범어사는 흔히 산지중정형이며 우각진입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창건 때의 건축형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중층이 단층으로 또는 누하진입이 우각진입으로 바뀌었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어쨌든 현재로서 이 건물의 창건 때 건축형식은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론, 1989, p.121과 오충린, 「梵魚寺 가람배치의 변화 및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華嚴十刹로서의 성격 및 浮石寺, 華嚴寺, 海印寺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8, 연세대 석론,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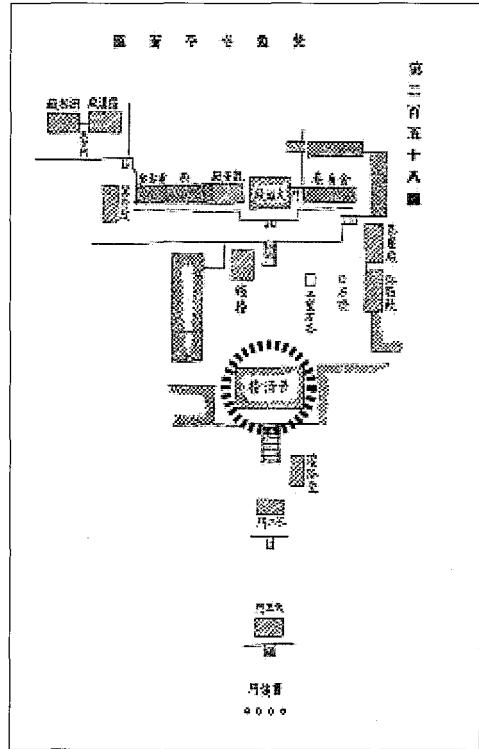
1700년 창건 때의 기록들에서 중층이었고 이후 1812년 중창 때 단층으로 바뀌어졌음을 사진자료 등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보제루가 중층 건물이었다면 지금의 우각진입 방식이 아니라 누하진입 방식이었을 가능성도 뒤따른다. 범어사 승려들 간에는 원래 보제루가 중층이었고 누하주로 출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sup>2)</sup> 여기다가 급경사지에 위치한 산지 사찰의 누각들이 대부분 중층 구조에 누하진입인 것도 그럴 가능성을 크게 한다.

한편 일본식 벽면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범어사 고유의 건축형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멀리 잡아도 1812년 이래의 것이고 가깝게는 1910년 이래 형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보제루의 원형 복원의 당위성과 함께 이 시점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1700년 창건과 1812년 중창 때의 건축형식에 대한 파악이다. 이와 함께 그 변화의 원인과 배경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복원 시점과 건축형식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보제루의 창건과 이후의 개·보수를 통하여 건축형식과 진입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이어서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를 비롯한 창건 이래의 조영기문, 「題梵魚寺普濟樓」(1766)와 같은 題詠 등의 문헌자료 그리고 『朝鮮古蹟圖譜-13권』(1934년)에 실린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때 남겨진 사진 및 그림 자료 그리고 최근 필자들에 의한 건물실측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1차적으로 보제루의 원형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 설정에 중요한 근거



<그림 1> 세키노 타다시의 범어사 배치도(1902년 8월 14일) 보제루가 중정 전면에 중루는 심검당 앞에 있다.

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한국불교 산지거람의 중정누각의 성격과 건축형식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리라 본다.

## 2. 보제루의 건축현황과 변화

보제루가 창건된 1700년 무렵의 범어사는 임진왜란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특히 1702년 이곳의 金井山城 축조 때 僧營寺刹이 되면서 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sup>3)</sup>

이에 앞서 1680년에 대웅전이 중창되고 1694년에는 비로전과 조계문이 중창되었다.

2) 범어사 前 주지 대성 스님과 면접

3) 徐致祥,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건축역사연구』 통권 35호 제12권3호, 2003. 9, p.39

1699년에는 청풍, 심검, 원웅, 안심, 함홍, 해행, 침계, 금당 등 8방사도 복구되는 등<sup>4)</sup> 가람의 면모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寺衆 수도 4백 명을 웃돌 정도로 자체 조영인력도 충분히 갖추는 등 寺勢가 크게 신장되던 시기에 보제루가 창건된 것이다.



<사진 1> 보제루 사진(1902년 8월 14일) 1812년 중창 때 모습 그대로 인 듯하다.

현재로서 보제루의 가장 오래전 모습은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린 2장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2년 8월 14일 범어사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머물면서 경내 중심영역에 대한 소략도면을 작성하면서 건물을 촬영한 것이다.<sup>5)</sup> 그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건축조사보고』(1904년)에 담아 출판한 바 있다.

그런데 세키노 타다시는 이 책에서 보제루의 지붕을 맞배지붕이라 했다. 이는 2장의 사진에서 보는 팔작지붕과 다른 내용이다.<sup>6)</sup> 따라서 사진이 1902년 이후의 것이거나 아니면 지붕에 대한 서술 착오일 가능성 등 두 경우

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일 경우 사진에서 보는 보제루는 1910년을 전후해서 다시 바뀐 것일 뿐 1902년에는 맞배지붕이었던 셈이 된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 내용과 서술 간의 차이나 오기를 발견한 바 있다. 그래서 일단은 2장의 사진이 1902년에 세키노 타다시가 촬영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1812년 이래로 원 위치에서 칸수나 층수 및 지붕형식 등도 변화가 없는 셈이다.

지금의 보제루로 오르기 위해서는 하단 영역의 세 번째 산문인 불이문을 지나 36단의 가파른 石梯를 올라야 한다. 중단과 하단 대지 간의 높낮이 차는 7m 정도이다. 이처럼 경사가 급한 대지에 위치한 여타 사찰들에서 중정누각은 하단과 중단 간 축대 상에 중층 건물로 지어지고 누하진입 방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범어사의 보제루는 중정 남단(실제 향으로는 동단)에 단층으로 지어져 있다. 중정으로의 진입도 석제를 올라 건물 좌·우측을 돌아서 이뤄진다. 그래서 하단에서 중단으로 또는 중단에서 하단으로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모두들 답답하다고 느낀다. 원래는 중층누각에 누하진입 방식이었다는, 즉 사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어선지 원래부터 이러한 건축형식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가 많다.

어떻든 중정은 폐쇄적이어서 공간의 내밀성은 더욱 강해진다.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普濟’의 뜻대로 법회가 빈번히 열리고 이따금 중정에서도 법석이 펼쳐진다.

보제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에 2익공식 공포를 짜서 겹처마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습은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린 2장의 사진 그대로

4) 徐致祥, 「앞의 논문」, 41쪽.

5) 關野貞, 關野貞研究會編,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1998, 122쪽.

6) 關野貞, 『韓國建築調査報告』, 동경제국대학, 1904년, 184쪽. ‘普濟樓 五間三面 單層 兩下 木瓦葺 內部 床板張 天井 化粧 屋根 裏三重虹梁ヲ 用フ 内外彩色ヲ 施ス’이라고 했다.



<사진 2>. 보제루 사진(1902년 8월 14일)  
기둥과 창방, 지방 사이, 공포와 화반 사이는 공포 벽  
없이 안팎이 통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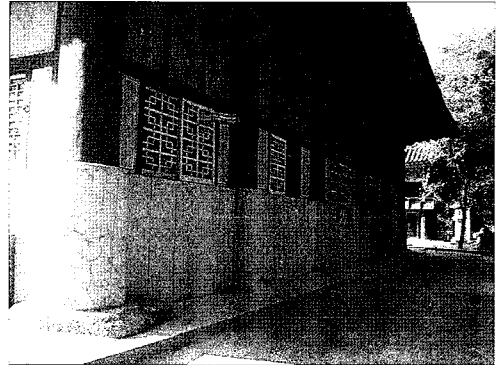
이다.

지금의 벽면은 『조선고적도보』의 사진들  
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즉 사진에는 상단  
쪽으로 문이 없이 완전히 개방되고 양 측면은  
회벽으로 그리고 하단 쪽은 판벽 사이에 쌍여  
단이 판장문이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건물  
의 각 주간에는 4짝 미서기 유리문이, 하단  
쪽으로는 2짝 미서기 유리창이 높직하게 설치  
되어 있다.



<사진 3> 보제루 중창식(1963. 9. 24)

이러한 벽면구성은 일제강점기의 변경로부  
터 비롯된다. 1915년의 그림엽서(사진 6)와  
1927년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필름  
(사진 7)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상단 쪽의 개방된 각 주간에 유리창이 설치되  
고 하단 쪽의 판벽과 판장문 대신 일본식 회  
벽으로 변경된 것이다. 최근까지 벽면에 대한  
개·보수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고쳐지지



<사진 4> 보제루의 하단 쪽 입면(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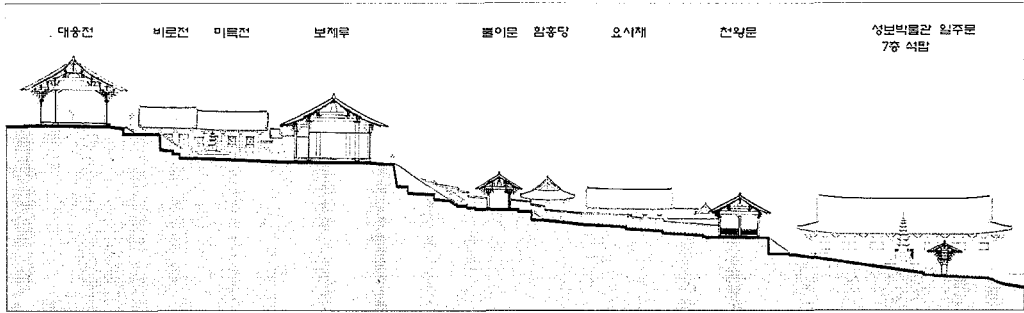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보제루의 왜색 논  
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다.

최근의 개·보수가 일제강점기에 변경된  
벽면구성을 바탕으로 이뤄졌음은 사진 3(1964  
년)<sup>7)</sup>과 현황을 대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  
컨대 <사진 3>은 1963년에 전면의 창호를  
새롭게 설치하는 소규모 수리 때 촬영된 것이  
다. 그런데 전면 주간 위로 유리문 설치를 위  
한 중방과 그 위의 동바리가 하나씩이 보이  
다. 또한 남단 쪽 벽면에는 주간을 4등분한  
문틀이 보인다. 이는 <사진 6>에서 보는 전  
면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1915년에 형성  
된 벽면구성 위에서 최근의 개·보수가 이뤄  
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63년 수리공사 때 목조기둥 일부와  
징두리 벽체 등에도 변경이 이뤄졌다. 네 모  
서리기둥 아래 1.5m 정도 높이의 石柱가 설  
치되고 나머지 기둥은 콘크리트 기둥으로 교  
체되었다. 그래서 대웅전 쪽 전면에만 그대로  
목조기둥이 남아 있고 좌·우측면과 배면 평  
주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교체된 것이다. 또한  
징두리벽도 판벽 대신에 벽돌조적 위에 석판  
붙임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2익공식 공포 부재나 화반 등은 1902

7) 동산문도회·김광식, 「동산대중사와 불교정화운동」, 범어사, 2007. 5, 541쪽.



<그림 2> 대웅전과 중정, 보제루, 석제, 불이문을 중심으로 한 단면도

년 사진과 다르지 않아서 1812년 이래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공포는 주두 위로 초익공과 이익공을 겹쳐 놓고 1출목을 짧게 내어서 외목도리를 받게 했다. 익공과 행공첨차에는 초각 없이 파련 형상으로 단청만 되어 있고, 각 주간의 창방과 장혀 사이에는 화반이 1구씩 없�히며 공포 벽에는 불화가 그려져 있다.

이 밖에도 2007년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에 걸친 실측조사<sup>8)</sup> 때 내부 우물천장 속의 들보와 대공, 도리 등이 잘 보존된 상태이고 바닥에 깔 일본식 다다미 밑의 우물마루도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1700년의 창건과 건축형식

#### 3-1. 옛 종루의 대체

보제루의 창건 기록은 담권(曇捲)이 쓴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가 유일하게 전해진다. 이 기록에는 보제루의 창건 배경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찰 中唐에는 옛날 종루의 기둥이 부러져서 오를 때 오래 할 수 없어서 山家の 흠이 되는 일이었다. 이에 自修장로가 한숨 쉬며 공사를 일으키는 것

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고, 釋瓊, 文印, 明學, 最善 등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 널리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을 모아 기묘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년이 안 되어 완공을 보았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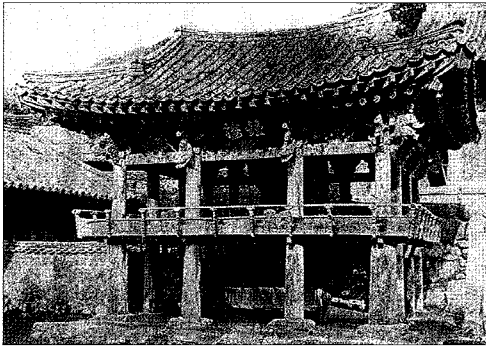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예전부터 중당, 즉 중정에는 종루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옛 종루가 언제 처음 지어지고, 무너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범어사 건물들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복구되었으므로 1600년대 초에 지어졌고, 1600년대 말에 무너졌을 것이다. 1630년대와 1690년에 기록된 제영에서 종루를 지칭하는 ‘石樓’나 ‘登樓’라는 구절이 확인되는 것이 종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10)</sup>

옛 종루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보제루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흔히 경사지의 산지중정형 사찰에서 누각은 상단의 주불전과 마주보는 중심중축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각은 사찰마다 명칭이나 기능이 약간씩

9) 曇捲 記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寺之中唐 舊有鍾樓 棟楹摧登陟靡所久 爲山家之欠事矣 有自修長老 慨然 以興起事功爲已任 與釋瓊文印明學最善等 齊心合感 廣募緣施 始役於己卯年 未周而功告訖

10) 李安訥의 『東岳先生集』(1600년대 초) 「梵魚寺晚起」에 ‘石樓僧未起’라 했고, 洪葦의 『淸溪先生集』(1690년대) 「次洪子輝韻」에 ‘登樓紅葉落’이란 표현이 있다.

8) 범어사 측과 계약 체결된 보제루 실측조사 현황도



<사진 5> 대웅전 앞 종루(1902년 8월 14일)  
 심검당 앞 중정 한 편에 있던 1700년 중창 때의 모습 그대로이다. 같은 해 지어진 보제루도 규모만 달랐을 뿐 이와 비슷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예컨대 조선전기 왕실 願刹 등에서 종루는 중정 남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17, 8세기로 오면서 종루 대신에 강당 기능의 누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대로의 경우도 없지 않다.<sup>11)</sup> 예컨대 송광사에는 지금도 종루가 중정 남변에 자리 잡고 있다. 중심종축은 우화각, 천왕문, 종루, 대웅전 순으로 이어지는데, 중층의 종루는 중단과 하단의 경계가 되는 축대 상에 걸쳐서 세워졌다. 그래서 중정으로의 진입은 누하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인사에서는 1984년에 범종각이 건립되기 전까지 중정 남변의 구광루가 종루의 역할을 겸했다. 구광루의 전신은 1490년에 창건된 원음루로서 2층 누각 한 편에 佛前四物이 비치되어 있었다.

봉정사에서도 중정 남변의 덕회루 누하주를 통해서 중정으로 진입이 이뤄진다. 종루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덕회루의 2층 마루에는 梵鐘, 法鼓, 雲版, 木魚 등 四物이 비치되

어 있다. 1984년 이전의 해인사와 같은 형식이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찰에서 종루는 중층 누각으로 지어졌다. 또한 일부 사찰에서 종루는 중정 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보제루가 창건되기 전에 중정에 있었다는 종루도 중정 남단에 중층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1700년에 보제루를 창건할 때 함께 옛 제도를 따라 중창한 종루가 중층 누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02년에 세키노 타다시가 촬영한 <사진 5> 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그런 정황으로 옛 종루의 위치에 건립된 보제루도 중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서 급경사지의 대지조건을 감안하면 중정으로의 진입은 보제루의 누하주를 통한 누하진입 방식이었을 것이다. 물론 1700년에 창건된 보제루가 중층 누각이었고, 누하진입 방식이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중층이라고 모두 누하진입 방식일 수는 없다. 다만 누하진입이 위해서는 중층 누각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다면 먼저 보제루가 중층 누각이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 중층 누각의 형식

보제루가 중층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東萊府北嶺金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저 누각의 광대하고 뛰어난 경치는 올라와서 보는 자들이 한번 눈으로 둘러보면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는다.<sup>12)</sup>

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 오른다는 뜻의 ‘登覽’이란 단어가 주목된다. ‘登覽’이란

11) 홍병화 외,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正門과 門樓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 통권 62호 제18권 1호, 2009. 6, p.56

12) 曇捲記 「東萊府北嶺金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若夫樓之宏絕勝槩 則登覽者一寓目而盡取之斯不必論

지층에서 계단을 통하여 높은 樓臺의 마루에 올라 주변을 관람할 때 쓰는 단어이다.<sup>13)</sup> 만일 지금처럼 마룻바닥 높이가 지반에서 40cm 정도라면 이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위의 인용문대로라면 보제루의 누마루는 지반에서 상당히 높게 축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마루로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층이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용어는 ‘軒檻’이란 단어이다. 헌함은 흔히 누각이나 대청 등의 기둥 바깥으로 돌아가게 간 좁은 마루를 뜻한다.<sup>14)</sup> 이는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에서 확인된다.

印·學 兩公은 입을 옷을 괴롭게 하고  
먹을 것이 바닥나도 그 나머지 것을 미  
루어 巨屋 軒檻을 다스리고 기와와 벽  
들로 극히 아름답게 이루었다.<sup>15)</sup>

라 해서 문인과 명학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큰 지붕에 헌함이 있는 건물을 완공했다고 썼다.

이 밖에도 1812년 중창공사 전으로 창건 건물이 존속되고 있었을 1760년경에 申琬이 쓴 「題梵魚寺普濟樓」에는

누구에겐들 인생살이 꿈이 아니겠는가!  
난간에 기대어서 유유자적하면서 내 스  
스로를 숙이네.<sup>16)</sup>

13) 예컨대 중층 누각인 雙碧樓에 대한 題詠으로서 姜渾(1464~1519)의 「梁山雙碧樓」의 ‘薄暮登臨看絕景’라든지 洪貴達(1438~1504)의 「瞻金士廉」의 ‘登臨眺遠欲乘仙’, 周世鵬(1495~1554)의 「次雙碧樓韻」의 ‘登臨謾有先憂志’, 그리고 任相元의 『恬軒集』卷之三의 ‘登梁山雙碧樓’가 그런 예이다.

14) 張起仁, 『新編 韓國建築大系 IV-韓國建築辭典』, 普成閣, 1996, p.113

15) 曇菴 記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若印學兩公者 若其衣廢其食推其所餘 治其巨屋軒檻焉 以治其美瓦甃焉

16) 申琬 撰 『鏡巖集』 「題梵魚寺普濟樓」(1766), ‘大塊

라 했다. 헌함 난간에 기댄 모습을 읊은 내용이다. 물론 遊山記나 제영(題詠)의 단어들이 상징적인 관용어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보제루 만을 대상으로 쓴 것인 만큼 건축형식도 구체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묘사된 헌함도 평주 밖으로 돌출된 난간이다. 따라서 보제루는 각 주간에 벽체가 없는 개방된 구조로 지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보제루가 중층 누각이라면 이는 앞서 있었던 종루의 건축형식과 같다. 나아가서는 이 무렵 관부나 개인이 경영했던 별서형 누각과도 흡사한 형식이다. 그래서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에서도 크고 장려한 누각 위에 올라서 한 번만 둘러보면 주변 일대가 모두 한눈에 들어온다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의 보제루는 범어사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층고도 높고 부체들도 치수가 커서 가장 웅장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주변 모두가 한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마룻바닥이 지반에서 40cm 정도에 불과한 단층이어서는 불가능하다. 즉, 하단 쪽의 각 주간에는 높은 미서기창이 고풍과 같은 식으로 설치되는 정도이다. 그러서는 보제루 내부에서 외부로의 조망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층 누각에 사면이 환희 트이고, 헌함이 돌출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앞서 인용된 조영기문이나 제영의 내용과 잘 부합한다고 하겠다.

### 3-3. 別墅로서의 기능

보제루의 개방된 주간과 판벽이 회벽으로 막히고 창호가 설치된 최초의 모습은 〈사진 6〉(1915년)에서 볼 수 있다. 즉, 1902년 무렵

誰非夢 憑欄謾自悠’

[표 1] 주요 山地伽藍의 中庭 樓閣의 건축형식과 진입방식

사찰명	누각명	칸수	층수	진입방식	창건 증년	벽체 창호	현합 난간	전후주 높이차	상하 단차	배치도	단면도
海印寺	九光樓	7×2	2	누하	1490	판벽 판문	무	유	대		
松廣寺	鍾鼓樓	3×2	2	누하	1843 1955	무	유	무	중		
浮石寺	安養樓	3×2	2	누하	1580	무	유	유	대		
雙磎寺	八泳樓	5×3	2	우각	1641	판벽 판문	무	유	대		
傳燈寺	對照樓	5×2	2	누하 우각	1749 1932	판벽 판문	무	무	중		
龍門寺	紫雲樓	5×3	2	우각	1166 1561	판벽 판문	무	유	대		
龍珠寺	天保樓	5×4	2	누하	1790	판벽 판문	유	무	중		
銅華寺	鳳棲樓	5×3	2	누하	1725	판벽 판문	유	무	대		
鳳停寺	德輝樓	5×3	2	누하	1680	무	유	유	대		
花巖寺	雨花樓	3×3	3	우각	1711	판벽 판문	무	유	대		



까지는 전면이 트인 구조였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조선후기 산지중정형 사찰의 중정 누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전면을 제외한 3면에 판자벽과 판장문이 설치되어 문루의 형태를 취하면서 법회를 개최하는 강당으로 사용되었다.<sup>17)</sup>

범어사에서도 최근까지 보제루를 법회실로 지칭해 왔다.<sup>18)</sup> 다만 보제루의 전면에까지 미서기 유리문이 설치된 것은 일제강점기 들어서였다. 전래의 법회 외에도 빈번히 개최되던 전국승려대회나 강연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보제루가 강당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은 1812년 중창 때부터일 것이다.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1, 2> (1902년)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강당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1700년에 창건된 보제루가 사방이 트인 누각이라면 강당이 아닌 별서의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 이는 창건 기록인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에서 확인된다.

지금부터 사신이 지나갈 때 넓은 자리에 사람들이 뺨뺨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설치할 수 있고, 유람하는 객들이 찾아오면 덮어주는 장막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다닐 때 각각이 적당함에 맞아 구제함이 사람들에게 좋고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sup>19)</sup>

라고 했다. 짧은 문구여서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제루가 명승지의 누각처럼 지어졌음을 시사하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예컨대 지방 관부에서 경영했던 전주 축석루나 삼척 축서루와 같이 객

관(客館) 누각이나 사대부들이 산천경계가 뛰어난 곳에 경영했던 별서와 그 성격이 흡사했을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누각들은 주변의 뛰어난 산천경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벽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대청마루는 사방의 기둥 바깥으로 좁은 마루, 즉 헌함이 돌출되고 난간이 설치된다. 그래서 누마루의 어느 위치에서든 바깥 경치의 조망과 관람이 가능하다. 1766년경에 申琬이 「題梵魚寺普濟樓」에서 난간에 기대서 自悠함을 읊은 내용<sup>21)</sup>에서도 이러한 건축형식을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1700년 창건 당시의 보제루는 2층 마루를 밖으로 내밀어서 헌함과 난간이 갖춰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창건 때의 보제루는 그 기능이 지금과 같은 법회용 강당이 아니라 遊客들의 賞自然을 위한 별서건축에 가까웠다고 하겠다.

#### 4. 이후의 건축형식 변화

##### 4-1. 창건 직후의 공사

###### (1) 숙종 28년(1702)의 단청 공사

보제루가 창건된 지 3년 후인 1702년에 단청 공사가 실시되었다.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丹靨記」(1702년, 沙彌 曇捲 記)에는 창건공사 때 “自修와 釋瓊 스님 등이 주관하고 畫員 妙雄 등과 도편수 靈哲 스님 등 모두 17명이 공사에 참여했다.”고 기록된다.

###### (2) 숙종 44년(1718)의 석제 공사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

17) 金奉烈, 「앞의 논문」, p.118

18) 1956년 5월 4일자 <범어사 건축물대장>

19) 曇捲 記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而從今 使華之過 設稠廣之席 遊客之來 得軒轅之所 行止朝夕 各適其宜 濟勝於人 人亦不爲少矣

20) 이에 대해서는 金奉烈, 「앞의 논문」, p.118에서 참고가 된다.

21) 申琬 撰 「鏡巖集」(1766년) 「題梵魚寺普濟樓」, 神光豁如客 金井傲清遊 破袖藏天極 短筇劈地頭 孤雲生遠岫 白鳥下長洲 大塊誰非夢 憑欄謾自悠라 했다.

曹溪門石柱四階石梯蓋石桶記」(1720년, 湖月門人 存覺 記)에는 “1718년부터 1720년 사이에 보제루를 비롯해서 대웅전, 비로전 및 팔상전에 석제를 쌓고 조계문의 기둥을 석주로 교체했다.”고 기록된다.<sup>22)</sup>

지금으로써 이러한 석제들이 어느 부분에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도 비로전이나 팔상전의 석제는 기단을 오르는 석축 계단인 것 같다. 그리고 보제루의 석제는 하단 영역에서 중정으로 오르는 석축 계단이거나 중정에서 누각으로 오르는 계단이었을 것이다. 다만 하단에서 중정으로 오르는 36단의 석제는 1936년에 축조된 만큼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중층 누각 또는 높게 지어진 건물로 오르는 석축 계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4-2. 1812년의 중수 공사

보제루는 창건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대대적인 중창공사가 이뤄진다. 공사가 끝난 지 1년 후인 1813년에 金坡任秋가 쓴 「梵魚寺普濟樓重修記」에는 당시 공사의 전후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면서 바람에 짝이고 비에 씻겨 기둥과 들보가 적백색이 되고, 丹腹은 검고 어둡게 되니,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모두 상심하지 않음이 없었다. 다시 중수해야 한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일은 크고 힘은 약하며, 모기가 산을 짊어진 것 같고, 노래기가 바다를 마시는 것 같아 어찌 할 수 없어서 꺾이 울듯 게가 걸어 다니듯 한 지가 오래되었다.<sup>23)</sup>

22) 湖月門人 存覺 記,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蓋石桶記」(1720년), 曹溪門四箇石柱 普濟樓石梯 大雄殿石梯 毘盧八相兩殿石梯香積殿石井 禪僧兩雨堂 所立蓋石桶也

23)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寒往暑來 風磨雨洗 棟樑赤白 丹腹黔昧 過而覽者 莫不躊躇而盡傷志 欲重理群誦 而事巨力綿 蚊山蝨海 末之何 雉

라고 했다. 이 내용은 1700년에 창건된 보제루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퇴락해서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어서

그러다가 신미년에 중론이 합해져서 주변 여러 사찰로부터 곡식과 재물을 모으고, 이어서 化士를 보내어 檀門을 널리 고하니 檀越이 다투어서 베풀고 층림에서 재물을 내어 여러 힘을 수습하고 펼쳐서 品物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sup>24)</sup>

라고 했다. 신미년은 1811년(순조 11년)으로 그해 1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찰내 여러 뜻을 모으는 데서 널리 공사비를 모금하는 등의 준비 기간이 대단히 길었다.”고 했다. 단일 건물을 짓는 공사로는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공사였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金坡任秋는 이 글에서 ‘重修’라 했지만 ‘重創’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기존 건물의 부분 수리가 아닌 건물 전반을 새로 짓는 공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공사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시주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金坡任秋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에 기록된 시주처는 635개 처였고, 액수는 1,329냥 쌀 53석 14두, 조 1석에 달했다. 액수도 많거니와 경상도 전역에 걸쳐 관아와 촌락과 사찰들로부터 많은 시주가 이뤄졌다.<sup>25)</sup>

鳴蟹步者久矣

24)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歲辛未 衆議克合 乃募粟鳩財於左右諸刹 繼以發遣化士 普告檀門 檀越爭施 叢林損財 衆力收展 品物咸殖 事皆立辦

25)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本山中施主秩〉에는 金坡任秋 5냥을 비롯해서 모두 9인이 21냥을 시주했고, 通度山中의 三星晷證 5냥을 비롯해서 10인이 25냥, 新興寺中の 九龍有檐 1냥, 載藥山中의 藥峰永希 1냥, 瑜伽山中의 愼庵永詢 1냥, 西林山中

기술자도 이례적으로 많이 동원되었다. 이 문건 속의 〈普濟樓重修緣化秩〉(1813년)에는 목수만 해도 26명이 기록된다.<sup>26)</sup> 100년 전이지만 1699년 보제루 창건 때의 12명과 1713년의 대웅전 중창공사 때의 16명과 비교하면 크게 웃도는 인원수이다. 같은 시기인 1813년의 동래향교 대성전 중창 때의 26명과는 인원수가 거의 같다.<sup>27)</sup> 그 무렵 관아나 향교의 조영에 비해서도 작은 공사가 아니었다. 이 또한 건축형식의 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한편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에서는 새로 지어진 보제루의 형상을 일부마나 엿볼 수 있다.

그 다음해 정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4월 초3일에 낙성을 고하니 건물이 환희 트이고도 아름다워서 옛 제도를 닮았되 기둥과 들보와 桶을 더 넓게 고치니 곁이 빛나고 달리듯 새롭고도 정교하며 더욱 화려하고, 殿堂과 廡門이 알맞게 갖추어져서 새벽이나 밤중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神이 주고 鬼가 가르쳐주어 삼태기를 덮는 공역이 몇 달이 못 되었으니 어찌 그렇게도 쉽

의 鳳岩維垣 1냥 등이 시주된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本寺各契秩>에는 射契의 200냥 등 474냥과 甲子甲米 50석 10두의 쌀이 시주되었고, <本寺前啣捨施秩>에는 嘉善就奎의 80냥을 비롯해서 모두 195냥이 시주되었다. 이 밖에 東萊府 鄉廳 등 각 관아와 마을 등 635개 처에서 도합 1,329냥 쌀 53석 14두, 조 1석이 시주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6)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普濟樓重修緣化秩>에는 成造都監 通政信定 典物都監 通政儀甘 鐵物都監 嘉善戎信 文簿監察 前僧將有伯 木手 金成大 金聖大 都木手 寬式 副片手 萬岑 右片將 寬札 左片將 裴進道 衆工 永有 幸澄 萬宗 志洵 太一 戒澄 勝仁 坦性 最洵 致淑 國活 定儀 國信 斗彥 國仁 趙龍 得 李東彩 李願儀 金處信 方龍世 洪春奉 金龍雲 黃之憲 池和得 治匠 金福萬 蓋匠 朴 鉅刀匠 幻性 平一 張朴 供養主 掄一 辛一 負木 最希 致根

27) 曇捲 記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曇捲 記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兼丹殿記」(1714년), 「大成殿重修上樑文」(1813년)에서 확인된다.

게 이루어졌는가!<sup>28)</sup>

라고 했다. 새 보제루는 옛 제도를 닮았지만, 기둥과 들보 등을 增修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만으로 이전 건물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키노 타다시의 1902년 사진(추정)이 1812년 때 중창된 건물의 모습이라면 이전과는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셈이다. 따라서 새 건물은 규모가 더 커진 대신 단층 구조에 우각진입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1812년 중창공사로 지어진 새 건물은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린 두 장의 사진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이 세키노 타다시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시기는 1915년을 넘지 않는다. 1915년의 그림엽서인 <사진 6>에 실린 일본식의 형상보다 그 이전의 전통 목조건축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1812년 이래 1900년대 초까지 이렇다 할 수리 공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 4-3. 일제강점기 일본식으로의 변개

일제강점기에 보제루의 벽면과 창호가 크게 변개된 점은 앞서 언급되었다. 어떤 이는 일제강점기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뤄진 변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범어사 전래의 건축법식이 엄연히 유존해오던 상황에서 그것도 일본식으로 바뀐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이는 범어사만이 아닌 한국전통사찰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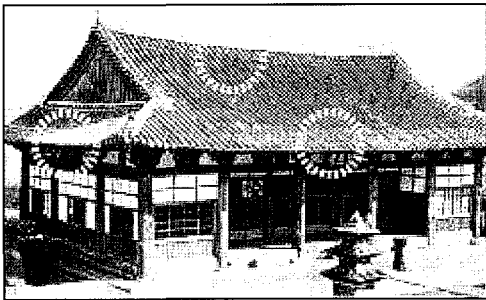
이러한 변개가 언제부터 어떤 배경 하에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도

28)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越明年春正月既望 開拓經始 夏四月 哉生明 告功極 爽壇且 輪奐倣舊制 而增修棟樑桶之得理 矚新巧 而愈侈 殿堂廡門之俱宜 晨夜展力 神授鬼教 不多月覆贊 何其易也

면이나 사진을 통해서 그 일단을 살필 수 있다. 그런 자료로는 <禪刹大本山梵魚寺全景圖> (도판 4, 1915년 8월 9일 범어사 주지 성월 작성), <사진 6> (1915년 보제루 사진), <사진 7> (범어사 전경사진, 1927년) 등이 있다. 그리고 <사진 7> 은 『조선고적도보-13권』 (1934년)에 실린 범어사 전경사진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필름(1927년)이다. 이러한 자료에 나타난 보제루의 모습과 1902년 세키노 타다시가 촬영했을 2장의 사진(사진 1, 2)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사진 6> 에서 보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주간구성이나 팔각지붕 등은 그대로이다. 그러나 벽면은 크게 변개되었고, 지붕 기와 잇기의 일부도 일본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벽면의 경우,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 2장(사진 1, 2)과 비교하면 측면 벽체의 판벽과 판장문은 제거되고, 그 대신 일본식으로 교체되어 있다. 즉, 전면 동, 서쪽 단부의 벽체와 좌·우측 벽체를 木割(きわり)이 섬약한 2개의 중방 또는 수평 켈대(貫 또는 長押)와 3개의 중깃이 직교되고, 그 사이에 회칠로 마감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단 영역 쪽 배면의 판벽과 판장문이 제거되고 좌·우측과 같은 일본식 벽면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각 주간



<사진 6> 상단에서 촬영한 보제루 사진(1915년). 이머 벽면이 일본식으로 변개되어져 있다.



<사진 7> 보제루 사진(1927년)

벽면은 중인방과 중깃 등에 의한 각 구획에 회벽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 벽면은 세로로 3, 4분되고, 그 아래에 가느다란 문살의 유리창이 설치되었다.

지붕형식은 세키노 타다시가 『韓國建築調査報告』에서 팔각지붕을 맞배지붕으로 잘못 서술이라는 가정 하에서 변화는 없다. 그러나 <사진 6> 에서는 용마루와 그 아래 및 처마 끝 내림마루와 합각마루 등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일본식 회벽선이 3줄에서 6줄씩 마감된 것(점선 부분)이 보인다. 이 사진에 촬영되던 1915년 무렵에 범어사가 조선총독부의 지원금으로 수리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아마도 그런 연유로 지붕 기와 잇기를 할 때 일본식으로 꾸며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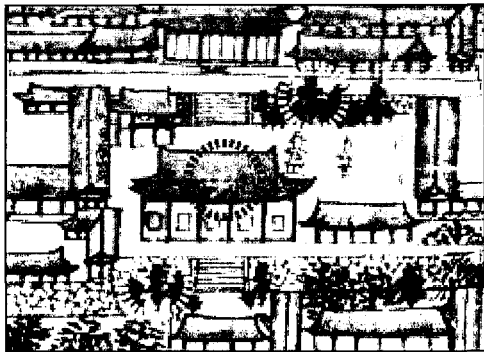
2익공식 공포와 화반의 형상은 <사진 1, 2> 와 비교하면 변화가 없다. 그런데 <사진 6> 에서는 화반 좌우로 회벽 마감한 공포벽이 새로 형성되어져 있다. 원래는 창방과 주심장혀 사이에 얹힌 화반 좌우가 트여져 있었으나 이 부분을 회벽으로 막은 것이다. 이후 이 부분은 <사진 8> 에서 보듯이 창방 아래로 중방 또는 수평 켈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1930년대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를 회벽으로 마감한 것이다. 어쨌든 누가 보든지 일본식으로 변개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석 댓돌이 있던 기단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제한된 사진 만으로 판독하기란 쉽지 않다.



<사진 8> 보제루 그림엽서(1930년대)

한편 1915년에 제작된 <禪刹大本山梵魚寺全景圖> (도판 3)에서는 보제루(점선 부분)의 하단 쪽 벽면이 잘 나타난다. 판벽에 판장문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진 6> (1915년)에서 보는 일본식 벽면이 그대로 그려진 것이다. 또한 이 도판에는 유달리 짙은 색으로 나무 몇 그루가 그려져 있다. 이 나무들은 지금도 그대로인데, 바로 일본 황실 상징수인 금송과 일본원산인 편백나무(점선 부분)이다. 그 무렵 조선총독부의 지원금을 받은 범어사로서는 당시 가람을 일본식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범어사는 구한말부터 항일불교운동의 중심사찰이었던 탓에 일제의 요주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강점 직후부터 사찰 곳곳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혈안이 되었을 것이다. 친일 승려를 주지로 앉히고, 심지어 일본신사



<그림 3> 禪刹大本山梵魚寺全景圖(1915년 8월 9일, 보제루 부분 발췌)

처럼 꾸미는 일을 획책하기까지 했다.

그 무렵 범어사는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행락지로 전락된 상태였다. 또한 일본불교도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다. 1910년에 촬영된 <日本佛教眞宗 西本院寺 釜山別院> (사진 9)이 보제루와 흡사한 벽면구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미 들어와 있던 일본불교건축을 모본으로 삼아 일제와 친일 주지들이 보제루 등을 일본식으로 변개시켜 간 것이다.<sup>29)</sup>

다만 어떤 이유에선지 일제강점기의 조영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아마도 해방과 함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된 때문일 것이다. 특히 범어사는 1954년부터 촉발된 불교정화운동의 발원지로서 이를 주도했던 東山 스님이 주석해 있었고, 비구승과 대처승 간의 분규는 어느 사찰보다 심했다.<sup>30)</sup> 이 또한 자료가 멸실된 원인<sup>31)</sup>이기도 했을 것이다.



<사진 9> 일본불교 진종의 서본원사 부산 별원 사진(출처:최석로,이규현해설 『사진으로 보는 근대한국 상권』 1910, 206쪽)

한편 1902년 사진(사진 1)에서 보이지 않던 전면 유리문은 일제강점기 중반으로 오면서

27) 尹錫煥,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 울산대 박론, 2006, 84-85쪽.

30) 이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55년 3월 1일자 '梵魚寺에 飛火 佛教界의 紛糾' 등의 기사에서 참고가 된다.

31) 이 당시 제임했던 대처승들은 사찰 문서를 몽땅 가지고 가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고 했다.(2003년 당시 주지였던 성오 스님과 면접 때 녹취록 중에서)

나타난다. 벽체가 없던 대웅전 쪽 전면도 유리를 끼운 미서기문이 설치되면서 점차 실내 공간화된 것이다. 일본식으로의 변개는 차치하고, 보제루의 실내공간화는 구한말부터 범어사에서 빈번히 개최되던 전국승려대회나 특별강연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 같다. 실제로 1905년 11월 범어사 내에 소학교가 설립되고, 1906년에는 명정학교가, 1916년에는 지방학림이, 그리고 1926년에는 금정 불교전문강원이 개원되었다. 이 밖에도 1928년에 프랑스 파리대학을 졸업한 문학사 김법린의 귀국강연회가 열리고, 불교전수학교가 개설되었으며,<sup>32)</sup> 연례적으로 전국규모의 승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모든 행사가 보제루에서 열렸던 것이다.

#### 4-4. 1964년의 수리공사

일제강점기에 변개된 보제루는 해방 직후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 1927년에 촬영된 보제루는 앞서 1915년의 <사진 6>과 다르지 않고, 1936년 7월 23일자 <조선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에 실린 전경사진과도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1963년에 부분적인 수리(사진 3)가 이뤄진다. 불교정화운동에 따른 사찰 분류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범어사 조실 스님이던 東山이 수리한 것이다. 당시 공사로 일본식 벽면 구성은 일부 해소되었다.

그러나 원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일본식 회벽은 철거되었지만, 그 부분에

벽돌로 벽체를 쌓고 그 위에 석판을 붙였는가 하면, 좌·우 및 배면의 목조기둥은 콘크리트 기둥<sup>33)</sup>으로 교체되었다. 서까래까지 노출되던 연등천장은 우물천장으로 교체되고, 마룻바닥에는 일본식 다다미가 깔려졌다. 보제루는 일본식으로의 변개에 이어 또 다른 형태로 변개되어 간 것이다.

### 5.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

#### 5-1. 기존 건물의 재건축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의 퇴락한 건물을 같은 형상으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간편하고 수월하다. 기존 건물을 해체해서 부후되고 박락된 부분은 신재로 교체하고 새로 단장해서 직전 모습대로 다시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건물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변개된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과 전통성 회복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 항일운동의 맥을 이어온 범어사에서 일본식 건축구성이 잔존하는 형태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5-1. 1812년 중창 건축형식

복원 시점으로서는 1812년 중창 때를 설정할 수 있다. 당시의 건물은 1700년 창건 때의 것은 아니더라도 1812년부터 오늘까지 200년 동안 범어사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다가 『조선교적도보-13권』에 실린 2장의 사진에서 변개되기 전의 대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찾을 수 있다. 이를 모본으로 삼으면 복원 건축형식을 찾는 일은 대단히 간편해진다.

32) 尹錫煥, 「앞의 논문」, 50-51쪽. 이 밖에도 1929년까지 梵魚寺 講院 講友會의 정기총회 16차까지 열렸으며 1932년에는 通度寺와 梵魚寺 講院學人 親睦會 창립총회가 열리는 등 대소의 집회와 교육, 강연이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입면은 일본식으로 바뀌고 내부공간은 종전의 法會와 法要式 중심에서 다양한 대내외적 집회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뀌어졌던 것이다.

33) 각 기둥을 단면으로 보면, 외부(콘크리트)에 면한 부분과 내부(목조)에 면한 부분이 복합으로 된 기둥임.

지금의 건물에서 일제강점기에 변개된 부분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기둥 등은 전통 목조기둥을 교체하면 된다. 천장 속 가구 부재나 우물마루 등은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

다만 1812년에 조성된 건물은 1700년 창건 때와 상당히 차이나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지금의 우각진입 방식을 유지한다면 중정의 폐쇄적인 공간감은 해소되기 어렵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물론 당시 사찰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사가 급한 대지의 사찰이면 대부분 중층 누각에 누하진입으로 되어 있다. 1812년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면 한국전통 산지가람에서 보는 경사지의 적절한 이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특히 세키노 타다시가 1902년에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작지붕의 사진 2장이 맞배지붕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문제될 수도 있다. 즉, 2장의 사진이 이후 변개된 시점에 촬영되었다면 1812년 중창 건축형식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5.3. 1700년 창건 건축형식

1700년 창건 때를 복원 시점으로 설정하면 범어사의 옛 모습에 한층 가까이 다가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그 무렵은 범어사가 금정산성 내의 國淸寺와 海月寺를 경내 사찰로 거느린 승영사찰로서 대가람을 이루었던 때이다. 관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세가 가장 크게 신장된 시기였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가람의 면모를 복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경사대지의 조건을 감안하면 보제루는 중층 누각의 누하진입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812년 중창을 복원 시점으로 삼는 데 비해서 건축형식을 정확히 찾

아내기가 어렵다. 하단과 중단 경계인 축대 상에 걸쳐 지어졌겠지만, 정확한 평면이나 입면구성, 의장법식 등을 고증하기가 어렵다.

다만 1812년 중창 때 이전보다 옛 제도를 모방하되 규모를 더 크고, 새롭게 지었다 하므로 상층부는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린 두 장의 사진을 원용할 수도 있고, 하층부는 대지조건이나 사격이 비슷한 사찰들의 예를 참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나 근사치에 불과하다. 보다 명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맺음말

범어사는 1980년대 이래 많은 건축사학자들이 산지가람 중에서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불교교리를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찰로 평가해왔다. 즉 경사지를 상·중·하단의 3단으로 적절히 분절해서 중심중축을 따라 하단에는 일주문과 천왕문, 불이문 등을 앉히고, 중단에는 보제루를, 중정 상단에는 대웅전을 앉혀서 중축상으로 이어지는 점층적인 위계적 공간구성을 절묘하게 구현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중정 전면의 장대한 보제루가 막아서고 우각진입 방식에 의해서 중정의 내밀함이 한층 더해진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는 1812년에 이뤄진 것이며, 1700년 창건 때로 소급하면 중층 누각에 누하진입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각 주간에는 벽체가 없이 개방되었고, 평주 바깥으로는 헌함과 난간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제루의 원형은 별서형 누각과 같은 건축형식이었다고 하겠다.

보제루는 옛 종루의 위치나 형식을 계승해서 세워졌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중정 남변에

위치하던 종루가 조선후기로 오면서 강당 기능을 가진 누각으로 변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각 주간이 개방되던 것이 벽체가 설치되고 실내공간화 되는 등 산지중정형 사찰에서 중정 누각의 변천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로 오면서 보제루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본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미 1915년 사진에서 일본식으로 바뀐 것을 보면 일제는 강제 합병 직후부터 사찰을 일본식으로 꾸미는 일을 도모했던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지원금을 교부하는 한편 친일 승려를 주지로 앉히고 일본불교건축을 모방토록 했던 것이다.

보제루의 일본식 변경은 주로 벽면에 치중되었다. 종전의 판벽 대신 가느다란 수평 펠대와 중깃이 직교되게 맞춰진 심벽 위에 회벽으로 마감하고 단청은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전형적인 일본식 벽면구성이다. 또한 전통적인 판장문 대신 벽면 하단에는 일본식 미서기 창이나 유리문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일본식 벽면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수리 때도 완전히 고쳐지지는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바탕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로 새로 마감하고, 단청을 하는 정도로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1960년대의 수리 때는 목조 기둥 일부를 콘크리트 기둥으로 교체하고, 종전의 일본식 회벽 부분은 벽돌 조적 위 석판 붙임으로 교체했다. 일본식으로의 변경에 이어 전통적인 건축형식이 또 다른 방식으로 훼손된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보제루의 복원을 위한 기준 시점과 건축형식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사찰 일부에서 거론되는 지금의 건물

을 그대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성 회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1812년 중창 때를 복원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단층 건물에 대응전 쪽을 제외한 3면에 판벽과 판장문을 설치하고 우각진입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셋째, 1700년 창건 때를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각 주간이 개방되고 현함을 갖춘 중층 누각으로서 누하진입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둘째 및 셋째 방안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

먼저 1812년 중창 때의 건축형식은 『조선고적도보-13권』에 실린 2장의 사진 등을 참고하면 비교적 간단히 찾아진다. 그러나 이 사진들이 1902년 이후에 변경된 상태에서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1812년 때의 건축형식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창건 건축형식이 아니며, 경사지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1700년 창건 때의 건축형식은 전통성 회복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경사지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사찰에 전해지는 이야기와도 부합된다. 다만 건축형식에 대한 정확한 고증 없이는 창작이 될 가능성이 커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상은 현재로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제루의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을 고찰한 결과이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 2장과 보제루 관련 서술의 착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는 1812년 중창 때의 건축형식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단서인 만큼 추후의 과제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曇捲 記 「東萊府北嶺金井山梵魚寺普濟樓創建記」(1700년),
2. 曇捲 記 「東萊府梵魚寺法堂重創兼丹腹記」(1714년)
3. 湖月門人 存覺 記,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蓋石桶記」(1720년)
4. 金坡任秋 記 「梵魚寺普濟樓重修記」(1813년)
5. 申琬 撰 『鏡巖集』 「題梵魚寺普濟樓」(1766년)
6.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13권』, 1934
7. 關野 貞, 『韓國建築調查報告』, 東京帝國大學, 1904
8. 「東萊鄉校大成殿重修上樑文」(1813년)
9. 張起仁, 『新編 韓國建築大系 IV-韓國建築辭典』, 普成閣, 1996
10.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敎理的 解釋을 中心으로-, 서울대 박론, 1989
11. 오충련, 「梵魚寺 가람배치의 변화 및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華嚴十刹로서의 성격 및 浮石寺, 華嚴寺, 海印寺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론, 1998
12. 徐致祥, 「朝鮮後期 梵魚寺 僧人工匠의 東萊地域 造營活動」, 『건축역사연구』 Vol 35, 2003. 9
13. 徐致祥 외, 범어사, 빛깔있는책들, 대원출판사, 1994
14. 尹錫煥,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울산대 박론, 2006
15. 동산문도회·김광식, 「동산대중사와 불교정화운동」, 범어사, 2007
16. 홍병화 외, 「조선시대 사찰건축에서 正門과 門樓의 배치관계 변화」, 『건축역사연구』 통권 62호 제18권 1호, 2009. 6
11. 최석로, 이규현 해설,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상)-산하와 풍물』, 서문당, 1996. 6.  
 접수(2009. 10. 15)  
 수정(1차:2009. 12. 19, 2차:2009. 12. 31)  
 게재확정(2009. 12. 31)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orm for the Restoration of Boje-roo in Beomeo-sa

Seo, Chi Sang

(Profe., Pusan National Univ.)

Youn, Suk Hwan

(Lecturer, Pusan National Univ.)

##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form for the restoration of noogak(樓閣), Boje-roo(普濟樓) which was constructed at the central court of Beomeo-sa(梵魚寺).

The results are as follow;

1. Boje-roo was established in 1700. By the constructional records and poetic essays of the times, the architectural form of the establishment building was consisted of two stories structure. The passage system for the approach to the inner court was the nuha-jinip(樓下進入), that is to say, one might walk between the columns of lower story of the building. And one could ascend the upper stairs and approach to the upper level, inner court.

2. By the remodelling in 1812, the building was varied to one story structure. Therefore the passage system for the approach to the inner court transformed from the nuha-jinip to the ugak-jinip(隅角進入), that is to say, one might ascend the stairs of the podium and could approach the inner court through the both sides of the building.

3.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the structure of it's roof and walls of Boje-roo were altered to the Japanese style. In 1965, the wooden columns were shifted to the concreted column, and the wooden wall-panels were shifted to the brick wall attached stone slates.

4. Conclusively speaking, for the restoration of Boje-roo, the establishment form in 1700 is the more proper than the remodelling form in 1812.

---

Keywords : Beomeo-sa, Boje-roo, nugak, nooha-jinip, ugak-jinip, Japanese style,

---